투자진흥지구 문턱 낮추고 사업자 부담 완화

제주도, 일부 개정 조례안 오는 9월 의회 제출 계획
심의 생략 가능한 경미한 변경 범위 10%서 20% 확대
투자 기준 금액 하향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제주 투자진흥지구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 심의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자는 애초 지구 지정 당시 제시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종합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단 지정 업종과 주요 사업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전체 사업 기간과 투자 금액, 고용 규모를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이른바 '경미한 변경'은 종합계획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를 통해 이같은 경미한 변경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개정 취지에 대해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금액 하향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업종 사업장에 대해선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을, 나머지 문화사업·연구개발사업, 화장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에 대한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 받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10년 간 면제 받는다.

그러나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 금액 조건이 까다로워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투자 기준 금액을 문화산업업종 5억원 이상, 관광산업업종 3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북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업종에 따라 5억~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30명 이상을 고용하면 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제주도는 투자 금액 하향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투자진흥지구 소관 부처는 국토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권자는 행안부 장관으로, 시행령 개정은 국회 심의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할 수 있다. 또 제주도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 하향 폭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행안부에 다시 한번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시행한 이래 투자 기준 금액을 상향한 적은 있었지만 하향한 적은 없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취나물 수확 분주한 손길 11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취나물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 '지지부진'

올 5월 기준 352개… 매년 정비해도 신설 반복에 '제자리'
설치 근거 법령·조례 묶여 한계…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각종 위원회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적 한계로 정비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유지할 경우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위원회 정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는 법령이나 관련 조례 등의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5월 기준 제주도가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352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5개에서 2023년 355개, 2024년 342개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51개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51개의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44개(12.5%)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제주도가 실적이 저조한 11개의 위원회를 정비했지만, 12개의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정비를 실시했음에도 위원회 수의 변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폐합 등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정비과정에서 폐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 필요성과 불필요성으로 나뉠 수 있지만,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며 "정비 시 법령과 조례 등으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비에 앞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과 지도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위 도정 첫 정기인사 맞춰 도청사 전면 재배치

옛 제주경찰청사 본격 활용… 에너지분야 등 집중 배치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 첫 정기인사와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대적인 청사 재배치에 들어갔다.

1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공유재산 매입을 거쳐 8월 정기인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옛 제주경찰청사에는 도시건설분야와 외부에 배치됐던 미래·에너지분야가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정책과 분산에너지과, 그리고 AI행정혁신추진단, 혁신관리담당관이 배치되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미래성장과, 첨단산업과, 노동일자리과가 이전 배치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물류과와 기자실은 위치를 맞바꾸면서 면적을 조정했고 아동보육청소년과 청렴감찰단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건강위생과는 주택토지과 등이 위치했던 별관 3층으로 옮긴다.

이밖에 신설되는 기본사회추진단은 별관 4층, 음악당준비TF는 제2청사 본관 1층, 전국체전기획단과 신설 노동안전감독관은 제2청사 별관으로 자리를 이전한다.

청사별로는 제1청사 본관에는 경제활력국과 정책기획관 특별자치행정국 소통·제2공항담당관 대변인, 별관에는 기본사회추진단 청렴감찰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세정담당관이 위치한다.

옛 제주경찰청사에는 기후에너지국 미래산업 도시건설국 AI행정추진단과 4·3지원과 도로관리과 탄소중립정책과, 제2청사에는 환경산림자원국과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노동안전감독관 교통항공국 전국체전기획단 예산담당관이 배치된다.

제주도는 21일 대규모 청사 재배치로 인사예고 후 이사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무 관련 서류 등 일괄 정리와 함께 22일부터 23일까지 주말 근무가 불가하다고 지침을 내렸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TP 정책기획단장 등 신임 부서장 공모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설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신임 부서장을 공개 모집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되는 부서장의 임기는 임용 예정일(2026년 10월 1일)로부터 3년이며,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recruit1@jejutp.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응시자격이나 전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TP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영석기자

소상공인 매장 찾아가는 디지털 튜터… 맞춤형 교육

도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지원 소상공인 AI·디지털 튜터 양성 및 매칭 사업'이 본격 운영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47곳, 서귀포시 30곳 등 총 77개 점포에서 튜터가 직접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 온라인 홍보와 고객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제주도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활용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디지털 튜터 17명을 양성했다.

도는 튜터와 소상공인을 매칭해 온라인 홍보, 고객 소통, 콘텐츠 제작, 플랫폼 활용 등 업종과 매장 환경에 맞춰 교육을 지원해 왔다. 도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갈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조선후기 명필인 추사 김정희선생의 추사체 완결지 및 불후의 명작 세한도의 탄생지로서 그의 순결한 예술정신을 기리고 제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며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근간으로 새로운 문예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26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휘호대회(공모전)**를 개최합니다.

- 참가부문: 한문, 한글, 문인화, 서각
- 작품규격: **한문, 한글, 문인화** : 70×135cm(전지), 35×135cm(2절지)
  ※ 색지 사용 불가 / **서각**: 가로70×140cm 이내
- 참가 신청 및 문의
  - 원서 교부: 2026년 **9월 1일(화) ~ 9월 4일(금)**
    ; **제주서예학회** 카페(cafe.daum.net/jejudoshufa) 다운로드
  - 작품 접수: 1) 접수: 2026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2) 우편 접수: 2026년 **9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마감 시간 이후의 도착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문의 및 접수 장소: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우 63146 제주시 오남로 6길 24(2층)
    ☎ (064)744-4959 Fax.(064)744-4958
- 출품자격: 국적 및 지역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인 자
- 출 품 료: 없음
- 출 품 수: 1인 1점 한함
- 명 제: 없음 (자유)
- 시상내용
  - 종합 대상(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패 및 상금 3백만원
  - 부문별(한문,한글,문인화,서각) 대상(4명): 서귀포시장 상패 및 상금 1백만원
  - 우수상(한문,한글,문인화,서각) 8명: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이사장 상장
  - 특선 및 입선: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이사장 상장
- 심 사: **2026년 9월 5일(토)**
- 발 표: **2026년 9월 7일(월)** 본 학회 카페(cafe.daum.net/jejudoshufa) 및 개별통보
- 시 상 식: 2026년 **10월 3일(토) 오후 3시 학생문화원 소극장**(미정)
- 전 시: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5일(월) 학생문화원 전시실**(미정)
  ※ 표구비는 본인 부담, 미표구시는 낙선 처리함. 또한, 이후 3년간 출품 제한함.
  ※ 상장은 전시 기간 중 전시장에서 배포.
- 작품반출: **낙선작은 심사 발표 후 3일 이내 직접 반출 가능.**
  전시 작품은 10월 5일(월) 오후 3~5시 반출.
  ※ 작품 반출 시간 이후의 미반출 작품에 대해서는 본 학회에서 분실 또는 파손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초대작가제도: 소정의 점수(15점)을 이수하면 본 대회 초대작가로 추대함.
  (종합대상8, 대상6, 우수4, 특선3, 입선1)

주최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주관 제26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휘호대회 운영위원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lligraphy Association

(주) 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직 원 모 집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과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소 속
관리팀(총무회계)

■ 직 무
총무(구매, 계약 등) 및 회계(전표, 계산서 발행 등)

■ 모집인원
1명(제주도민 우대)

■ 모집기간
2026. 8. 10(월) ~ 8. 14(금)

■ 제출서류
이력서 1부, 경력기술서 1부 (경력자 한함)

■ 제 출 처
youth@booyoung.co.kr

■ 문 의 처
T. 064)760-5711